

교실로 들어온 대중예술의 한 구체적인 경우

- 미래학으로 접근한 공상과학소설

박성봉*

1. 들어가며
2. 공상과학소설과 미래학
3. 공상과학소설의 간추린 역사
4. 교실로 들어온 대중문학: 공상과학소설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기
 - 4-1. 대개양
 - 4-2. 하나의 연합세계
 - 4-3. 역할들
 - 4-3-1. 전통적 역할들
 - 4-3-2. 새로운 역할들
 - 4-4. 새로운 발견과 발명들
 - 4-5. 공상과학소설을 통해본 미래사
5. 나가면서

국문요약

이 논문은 중, 고등학교 교실로 대중예술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한 제안이다. 청소년들의 일상에 대중예술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까지 학교의 교과과정에 대중예술이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논문은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하나의 구체적인 시도로 계획되었다. 언제부터인가 문화

* 경기대학교 다중매체영상학부 교수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렇다면 이 논문은 문화교육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어떻게 광범위한 대중문화, 예술의 산물들을 생산적으로 교육콘텐츠화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실에서 교육적으로 재가공해 사용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일차적으로 공상과학소설에 주목한다. 그 직접적인 동기는 1976년 스웨덴에서 출판된 리처드 L. 맥킨니의 *Science Fiction as Futurology*라는 책에서 촉발되었다. 이 책은 미래학적 관점에서 공상과학소설에 접근한 책인데, 과학적 기술의 변화가 눈에 띄게 급변하는 지금, 중, 고등학교 교실에서 미래학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자에게 출판된 지 30년이 된 이 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필자는 맥킨니의 책을 영화나 게임 등을 통해 공상과학물에 길들여진 학생들의 흥미를 사로잡으면서 학생들의 좁은 시야의 지평을 열어주는 교육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텍스트로 재구성했다. 가능한 한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공상과학소설을 텍스트에 포함시키고, 미래학뿐만 아니라 공상과학소설 그 자체의 매력에도 텍스트의 무게중심을 나누어 놓았다. 공상과학소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흥미를 사로잡을 수 있는 다른 대중문학 장르에 관심 있는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논문을 통해 수업을 구성하는 아이디어의 단초를 얻을 수도 있다. 한 마디로 이 논문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중, 고등학교의 교실과 청소년들의 일상의 간격을 좀 더 좁혀보려는 핵심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주제어

대중예술, 공상과학소설, 미래학,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을 위한 문화교육콘텐츠

1. 들어가며

몇 년 전 모 대학 학생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 때 학생들이 필자에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물었다. 사실 그 때나 지금이나

필자는 주로 대학생들과 함께 대중예술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 때 앞으로는 고등학교 학생들과도 만나서 대중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했었다. 2002년에 필자가 펴낸 책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의 예술』의 마지막 문장이 “교육만이 희망이다.”가 아닌가.¹⁾ 그 때 필자가 교육으로 염두에 두었던 것은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 마침 그해 겨울,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서 대중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 때 선생님들이 필자에게 기대했던 것은 대중예술이란 무엇인가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이었다. 선생님들은 무언가 교실에서 구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대중예술 관련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 필요했었던 것 같다. 아니면 기존 수업의 수업효과를 위해 대중예술을 적절히 접목시키는 아이디어라든지. 여하튼 교실에 대중예술을 끌어와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풀어갈 어떤 실마리 같은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렇다 할 중,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이 없었고, 지금도 강의에 실망한 선생님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지금 대중예술은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학교는 학생들 일상의 큰 부분이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접하는 문화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느껴진다. 한 마디로, 학교 안에서 대중예술은 무언가 선생님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문화라고나 할까. 물론 지금 사정은 예를 들어 10년 전과는 많이 다르다. 이제 서태지의 음악과 듀스의 노랫말, 그리고 교과서 삽화에 만화의 말풍선이 당연한 듯 쓰이고 있으니까. 문제는 전체적으로 학교보다는 대중예술을 업으로 삼는 문화산업의 영향력이 학생들에게 더 직접적이라는 것이다. 많은 선생님들이 대중예술의 상업성에서 비롯하

1) 박성봉,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의 예술』, 일빛출판사, 2002, 290쪽.

는 문화의 피폐함을 걱정하고는 있으면서도 학교에서 어떻게 대중예술을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이것은 풀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설령 학교에서 대중예술을 다루더라도 일단 교실에 대중예술이 들어오는 순간 대중예술은 더 이상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거친 비유를 하자면, 소독약을 잔뜩 뿌린 대중예술이 되고 마는 격이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의 의도와는 달리 곧 학생들은 관심을 꺼버리게 될 것이다.

이 글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접하는 대중예술의 느낌을 십분 살리면서 어떻게 대중예술을 중, 고등학교 교실 안으로 끌어들이느냐에 관한 글이다. 사실 몇 년 전 학생들과의 인터뷰대로라면 그 동안 필자 자신 중,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풍부한 만남에서 자극과 전망을 얻고, 그 경험을 토대로 좀 더 우리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제안들을 준비해야 했지만, 일단 지금 간접적이라도 어떤 출발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미뤄두기만 할 일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교실로 들어온 대중예술이라는 주제에 적절한 외국의 작업을 참조하기로 결심했다. 이 글에서 참조한 작업은 공상과학소설에 미래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리처드 L. 맥킨니의 작업이다.²⁾ 70년대의 작업이니까 상당히 여러 해 전이라 거론한 작품들이 80년대 이전의 것들이지만, 이 글의 취지가 공상과학소설 그 자체라기보다는 공상과학소설을 현재 접목 가능한 방식으로 교실로 끌어오는 아이디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맥킨니가 교실로 들어온 대중예술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한 것은 아니다. 그는 공상과학소설을 미래학적 관점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분류할 뿐이었다. 그러나 무책임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 수업은 현장에서 학생들과의 생생한 상호작용 속에서 선생님들 자신의 아이디어와 관

2) Richard L. McKinney, *Science Fiction as Futurology*, Lund, 1976.

심으로 실마리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단지 하나의 출발점으로서의 제안이다. 지금, 이곳의 중,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대중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싶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 막연하기만 한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에게 이 글이 어찌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미리 양해를 구할 점이 있다. 이 글을 읽은 독자라면 누구나 느끼겠지만, 이 글에는 글 속에서 어느 부분이 필자가 영감을 구한 저자의 생각이고, 어느 부분이 필자 자신의 생각인지 분명치 않은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기도 하다. 필자가 몇 년전에 펴낸 『도널드 윌하웃의 미학과 함께 한 일주일』도 그런 생각에서 작업한 책이다.³⁾ 필자의 생각을 분명히 구분해야 될 때는 “필자는...”이란 식의 표현을 쓰게 되겠지만, 그 외에 이 글에 포함된 중요한 정보나 뼈대가 되는 아이디어의 상당 부분은 원저자의 것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참조한 리차드 L. 맥킨니의 저술은 150쪽 정도의 분량으로 영어로 쓰여졌지만, 1976년 스웨덴에서 보고서 성격으로 나온 것이라 우리나라의 독자들이 구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할 수 있다.⁴⁾ 이런 이유로 글 속에서 일일이 원문의 출전을 밝히지 않은 데에 대한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혹시 이 글에서 공상과학소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바라는 독자가 있다면, 이 글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 필자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분석은 꿈도 꿀 수 없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차라리 중, 고등학

3) 박성봉, 『도널드 윌하웃의 미학과 함께 한 일주일』, 일빛출판사, 2004.

4) 1980년대 필자가 스웨덴에 있을 때 우연히 그의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지만, 필자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이 보고서 외에는 없다. 이 보고서는 스웨덴 룬드 대학의 국제관계학 미래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교 교육에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술기능론적인 것이다. 필자는 이 글이 가능하면 널리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소개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글에서 무언가 영감을 얻은 선생님들이 방학숙제로 공상과학소설 감상문 같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 글에서 언급한 소설제목들이나 방법론으로서 미래학은 출발점일 뿐이다. 이 글의 초고를 읽은 분이 우리나라의 젊은 소설가 듀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 하셨다. 필자가 원한 반응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필자로서는 이 글이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 숨쉬기를 바란다. 그 분이 추천하신 듀나의 「태평양 횡단 특급」이나 「첼로」 같은 작품이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나 이상의 「날개」와 나란히 중,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루어질 날을 꿈꾼다.⁵⁾

2. 공상과학소설과 미래학

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수업 시간 중에 교과서 사이에 소설책을 끼워 넣고 독서삼매경에 빠져본 경험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 읽던 책들은 대부분 학생의 신분으로 교실에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책들, 그러니까 갑작스런 가방 검사에서 들키면 그런 책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야단맞던 소위 대중문학이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물론 국어나 도덕 교과서에도 흥미 있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다. 황순원의 「소나기」라든지 구월산 유격대 이야기 등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리고 숨겨 읽던 소설들 중에

5) 「태평양 횡단 특급」과 「첼로」는 듀나의 소설집 「태평양 횡단 특급」에 포함된 단편들이다. 「태평양 횡단 특급」은 대체역사 등으로, 「첼로」는 로봇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실로 들어올 수 있다.

는 레마르크의 『개선문』이라든지 로망 롤랭의 『장 크리스토프』 같은 고전, 명작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것은 선생님들의 경멸을 부추기던 추리소설, 무협소설, 연애소설, 환상모험소설, 공상과학소설, 열기공포소설, 해학소설, 성애소설 등이었다. 지금 청소년들도 사정이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왜 학교에서 수업 중에 읽어야 하는 책과 읽어서는 안 되는 책들이 존재하는가? 수업 중에 몰래 숨겨 놓고 읽는 책들을 수업시간에 다룰 수는 없는 것일까? 며칠 전에 필자는 일본의 추리소설 작가 다카노 가즈아키의 『13계단』이란 책을 읽었다. 이 책은 간접적으로 일본의 사형제도를 다루고 있다. 13계단이란 사형대에 오르는 계단의 수를 말한다.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윤리적으로 민감한 제도중의 하나인 사형제도에 관해 이 책과 함께 『암흑가의 두 사람』이란 프랑스 영화, 『데드맨 워킹』이나 『데이비드 게일』 같은 미국 영화, 또는 일본의 만화가 코테가와 유아의 『사형수 042』 같은 만화들을 수업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로렌스 트리트라는 이가 엮은 『추리소설 쓰는 법』이란 책이 고정기라는 분의 번역으로 1987년에 나왔는데, 그 머릿글에서 트리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래인이 20세기를 알기 위해서 고문서를 섭렵한다고 하면 추리소설이야말로 절대적으로 권장할 만한 물건이 될 것이다. 추리소설은 『인간희극』 따위도 당하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고 적나라하게 시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⁶⁾ 대단한 자신감이다. 프랑스 문학의 고봉, 거의 신적인 취급을 받는 대문호 발작의 『인간희극』이 추리소설 앞에서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평범해질 수도 있다. 트리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광고의 교육적 가능성을 언급한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광고야말로 인간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

6) 로렌스 트리트 엮음, 고정기 역, 『추리소설 쓰는 법』, 보성사, 1987, 11쪽.

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좀 더 넓게 시선을 돌리면, 연애소설을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그리고 성애소설을 성교육적 측면에서 활용하자는 주장을 찾아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일 것이다. 만일 트리트가 한국사람이고 근처에 살고 있다면 교실로 추리소설을 끌어들이는 교과과정에 꼭 그를 참여시키고 싶다. 어떻게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가 그만큼 궁금하다. 물론 무척 힘든 일일 것이라 짐작할 수는 있다. 나의 부족한 견문으로 아직 누구도 20세기를 추리소설로 풀어나가는 교과과정을 개설하지 못한 듯하다.⁷⁾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일단 꾸준히 추리소설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추리소설은 짧은 날 한 시기의 관심에서 그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 관심을 계속 고무하는 분위기도 전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추리소설보다 대중적으로 더 관심을 못 받는 장르가 공상과학소설이다. 그러나 필자는 교실로 들어온 대중문학으로 공상과학소설을 선택했다. 그 직접적인 영감의 근원은 미래학 연구자 리차드 L. 맥킨니가 미래학적 관점에서 공상과학소설에 접근한 작업이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맥킨니가 교실로 들어온 대중예술이라는 주제에

7) Jane Tompkins는 *Sensational Designs*라는 책에서 찰스 브룩든 브라운의 소설 『위랜드』에 한 장을 할애한다. 『위랜드』는 추리소설의 초기역사에서 거론되는 작품 중 하나로 Tompkins는 이 소설을 통해 미국 독립전쟁 후의 혼돈스런 미국의 상황을 읽어 내는데, 이렇게 추리소설로 보는 역사 수업이 가능할 수 있다. Oxford Univ. Press, 1985. 이동연이 번역한 에르네스트 만델의 『즐거운 살인』은 ‘범죄소설의 사회사’라는 부제로도 알 수 있듯이 범죄소설과 사회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접근의 중심에 놓고 있다. 추리소설로 풀어나가는 20세기란 교과과정에 혹시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 참조할 수 있는 책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후, 2001. 추리소설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강현구는 「‘소프트 교과서’형 에듀테인먼트와 문화창작론」이란 논문에서 추리소설의 형식을 차용한 소프트 교과서라는 창작방법론을 제안한 바 있다. 『대중서사연구』 제16호, 2006, 157-194쪽.

관심을 갖고 그 글을 쓴 것은 아니다. 그는 공상과학소설 속에서 어떻게 미래가 묘사되는가 하는 미래학적 관심에서 그 글을 썼다. 그리고 공상과학소설은 우리 청소년들이 즐겨 읽는 대중문학도 아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급변하는 세상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엘빈 토플러의 책들이 이야기하는 대중적 관심에서도 분명한 것처럼 미래학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학의 형태로는 아니더라도 『매트릭스』나 『아마겟돈』 또는 『블레이드 런너』나 『에일리언』 같은 영화들을 통해 공상과학적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감수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맥킨니의 미래학적 작업은 교실로 들어온 대중예술이라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위한 영감의 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대중적 캠페인이 우주에 대한 젊은 세대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감도 있고, 그래서 필자는 일단 맥킨니의 공상과학소설에서 실마리를 풀어가지는 취지에서 150여 쪽에 달하는 그의 작업에서 뼈대를 취해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하기로 결심했다.⁸⁾ 앞서서도 양해를 구한 것처럼, 맥킨니의 작업은 책이라기보다는 보고서 성격이라 우리나라에서 그의 저술을 구해 읽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 일일이 원전의 페이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일단 영문으로 소개되는 모든 작품들은 그의 저술에서 가져온 것이고,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출판된 것으로 확인된 작품들이나 맥킨니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참고할만한 작품들은 각주로 표시했다.⁹⁾ 혹시 필자의 확인에서 빠진 작품

8) 공상과학소설이 중, 고등학교 교실로 들어올 때 꼭 미래학적 맥락일 필요는 없다. 아서 C. 클라크의 단편 「지구 통과」는 화성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임무를 완수하는 우주비행사들의 이야기인데, 청소년들의 사생관 형성에 교육적 의미가 있는 소설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단편은 「플레이보이 SF 걸작선1」에 실려 있다. 황금가지, 2002.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서도 언급한 다카노 가즈야키의 추리소설 「13계단」은 인간의 공포와 관련된 심리학적 맥락에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들은 - 그리고 그런 작품들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으로 짐작되는데
- 다음 기회에 보충할 생각이다.

3. 공상과학소설의 간추린 역사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상과학소설의 간추린 역사가 혹시 독자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¹⁰⁾ 공상과학소설은 영어로는 Science Fiction이라 한다. 앞에 ‘공상’자가 붙을 이유가 없으나 필자는 ‘공상과학소설’이란 용어를 좋아한다. ‘공상’이란 말 그 자체를 좋아할 뿐 아니라 그 소설의 세계가 아무래도 ‘과학’ 쪽 보다는 ‘공상’ 쪽에 가까운 까닭이다.¹¹⁾ 그래서 출판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환상모험소설과 공상과학소설을 한 데 묶어 ‘Fantasy & Science Fiction’으로 분류하곤 한다. 맥킨니는 그 공상 속에서 미래의 비전을 읽는다. 교실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갈 때 일단 공상 쪽에서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당

9) 우리말로 번역된 몇 권의 SF 걸작선을 소개한다. 이 글에서 거론된 작품은 아니더라도 거론된 작가의 작품들은 대체로 번역되어 있다. 박상준 편역, 『세계 SF 걸작선』, 고려원 미디어, 1993; 정영목 편역, 『세계 SF 걸작선』, 도솔, 1993; 한기찬 역, 『플레이보이 SF 걸작선』, 황금가지, 2002; 가드너 도조와 편, 신영화·박현주 역, 『21세기 SF 도서관1, 2』, 시공사, 2003, 2004; 데이빗 하트웰·캐스린 크레이머 편, 정은영·정혜정·최세민 역, 『오늘의 SF 걸작선』, 황금가지, 2004.

10) 공상과학소설의 간추린 역사는 David Kyle의 *A Pictorial History of Science Fiction*, London, 1986을 참조했다.

11) 1993년 「세계 SF 걸작선」을 편역한 정영목은 옮긴이의 말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SF라고 하면 ‘공상과학소설’이라고 옮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상’이라는 말을 빼고 ‘과학소설’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SF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정영목 자신은 ‘공상과학소설’에서 ‘공상’을 빼자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굳이 ‘공상’으로 부르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영목 편역, 앞의 책, 5쪽.

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공상’이란 부분이 필자에게는 적극적인 의미를 띠지만 George N. Gordon 같은 이에게는 소극적인 퇴행 비슷한 것이다. 그에게 공상과학소설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읽을거리이며, 미국의 대통령들도 공상과학소설을 읽는다는 사실에 그는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어처구니없는 경이감을 느낀다.¹²⁾ 공상에 대한 이런 경직된 불신이 쓸 데 없이 과학을 강조할 필요 없이 공상을 교실로 끌고 올 필요이기도 하다. 사실 아직도 본격문학의 입장에서는 공상이든, 과학이든 다 의심스러운 통속문학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한 듯싶다. 60년대 초 을유문화사에서 나온 『세계전후문학전집』의 여섯 번째 권 『남북구전후문제작품집』에는 인상적인 SF가 한 편 실려 있다. 모르데카이 로쉬발트의 『제7지하호』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번역한 소설가 오상원은 작품해설에서 영국의 선데이 타임즈를 인용하면서 이 소설이 과학소설이 아님을 극구 강조한다.¹³⁾ 오상원의 생각에 이 소설은 이 소설이 갖고 있는 여러 결함들 - 예를 들면 문체의 범용 등 - 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운명을 염려하는 작자의 입장만으로도 격이 있는 문학이다. 공상과학소설의 중심에는 언제나 ‘지금, 이곳’의 인간이 있다는, 공상과학소설을 좋아하는 독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60년대의 오상원은 당연한 듯 놓치고 있다.¹⁴⁾

공상과학소설은 멀리는 로마시대 루키아누스의 달나라 여행 이야기, 가까이는 줄르 베른느의 바다 속 여행, 또는 H.G. 웰즈의 시간여행 등으

12) G.N. Gordon, *The Language of Communication*, New York, 1969, p.190의 주석을 볼 것.

13) 오상원 「문제성을 찾아서: 작가와 작품해설」, 『세계전후문학전집6: 남북구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74판, 361쪽.

14) 사실 공상과학소설의 범주를 자연과학적으로 정의내릴 수는 없다. 필자에게 ‘공상과학소설’이란 영역의 설정은 오로지 ‘존경’과 ‘매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영역을 확대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다. 예를 들어 필자에게 대니얼 키스의 『빵가게 찰리의 행복하고도 슬픈 날들』은 멋진 공상과학소설이다.

로 거슬러 갈 수 있으나 대체로 1911년 미국의 휴고 건즈백(Hugo Gernsback)이 잡지에 연재물 *Ralph 124c41+*를 시작하는 시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그는 ‘scientifiction’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하다.¹⁵⁾ 이제 잡지를 중심으로 매니아층이 형성되고 하나씩 하나씩 공상과학소설의 관습이 실험되는 중에 중요한 작가들이 나타난다. 1926년 *Amazing Stories*라는 잡지가 등장하면서 나중에 『스타워즈』라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소위 스페이스 오페라(space opera)라 불리는 경향의 작가들이 활약을 시작한다. 에드가 라이스 버로우즈의 『화성의 공주』(1912)처럼 중세적 로망스의 성격이 강한 소설과 웰즈의 『우주전쟁』(1898)처럼 외계인의 침입, 체코의 희곡작가 카렐 차페크의 『R.U.R.』(1920)처럼 로봇의 등장 등의 영향들이 하나로 모여 대중문학으로서 공상과학소설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Other Worlds and Imagination* 같은 잡지도 인기가 있었다. 그러다가 1930년 *Astounding Science Fiction*이란 잡지가 등장하고 39년 캠벨(J.W. Campbell)이 편집을 맡으면서 공상과학소설은 한 단계 차원 이동한다. 이제 단순한 호기심으로 만족하던 공상과학소설에 인간과 환경에 대한 좀 더 심각한 사유가 개입되기 시작하고, 아이작 아시모프, 클리포드 D. 시마크(C.D. Simak), 제임스 블리쉬(J. Blish), 로버트 A. 하인라인, A.E. 반 보그트 등 앞으로 공상과학소설의 발전에 한 몫을 단단히 하게 될 작가들이 이 이 잡지를 통해 작가로서 발돋움한다.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로 들어오면서 영국의 *New Worlds*, 미국의 *Galaxy Science Fiction* 등의 잡지들이 사회비평적 경향과 함께 공상과학소

15) 박상준이 1993년 『세계 SF 걸작선』을 엮을 때, 그는 엮은이의 말에서 그 책이 “사실상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편집해내는 본격적인 세계 SF 단편집”이라고 자부한다. 어쨌든 그 책에서 SF로 선택한 용어는 Scientific Fiction이었다. 각주8에도 언급되어 있는 『세계 SF 걸작선』, 박상준 편역, 고려원 미디어, 1993.

설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 공상과학소설에도 뉴 웨이브(New Wave)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공상과학소설과 함께 자라난 세대들인 마이클 무어콕(M. Moorcock), 브라이언 올디스(B.W. Aldiss), J.G. 발라드¹⁶⁾, 존 브런너(J. Brunner) 등과 같은 작가들이 저마다의 스타일을 실험하면서 공상과학소설의 지평을 넓히기 시작한다.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던 공상과학소설이 이제 세계 전반으로 퍼져가며 새로운 작가들이 출현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서 김상훈이라는 본명으로도 활약하는 강수백 같은 좋은 번역가가 출현하고 있으니 전보다 사정은 훨씬 좋아진 것이다. 일단 외국의 좋은 작품들을 수준있는 번역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을 거친 후 한국 공상과학소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쓰여질 날을 기대해 본다.

맥킨니의 글에는 외국의 낯선 작가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한다. 필자는 그 중에 우리말로 번역된 책들을 가능한 한 확인해서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필자의 선택에 의한 복거일과 들어가며에서 언급한 두나를 제외하면, 이 글에서 한국이나 일본 또는 동양권의 작가의 이름은 거의 거론되지 않는다. 필자의 전문이 부족한 탓도 있으나, 그것이 현실인 점도 있다. 기술과 예술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21세기, 교실로 들어온 공상과학소설은 여러 가지로 일선 교사선생님들의 교육적 상상력을 자극할 것이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공상과학적 글쓰기의 상상력이 뿌리 내리길 바란다.

16) 뉴웨이브 작가들의 단편소설들은 걸작선집 등에서 만날 수 있으나, 장편소설들은 우리말 번역으로 구하기가 어렵다. 외우주보다는 내우주를 다루는 J.G. 발라드의 『크리스탈 월드』 정도가 번역되어 있다.

4. 교실로 들어온 대중문학: 공상과학소설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기

공상과학소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맥킨니는 미래학적 관점에서 (가)대재앙, (나)하나의 연합세계, (다)역할들, (라)새로운 발견과 발명들, (마)미래사 이렇게 다섯가지 영역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작품들을 소개한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 핵심만 추려본다. 구태여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교실에서는 단 몇 권이라도 실제로 작품을 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4-1. 대재앙

미래의 대재앙은 공상과학소설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학생들은 문학에서 보다는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일본침몰이나 원숭이가 지배하는 지구 대재앙 이후의 세상에 대해 이미 익숙해 있다. 환경파괴나 핵전쟁, 운석의 충돌, 태양의 폭발 등 대재앙을 야기할 수 있는 미래의 상황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험을 학생들은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상과학소설 중에 폴 앤더슨의 『타우 제로(Tau Zero)』¹⁷⁾처럼 엄청난 스케일로 우주의 재앙을 다루는 작품들도 있다.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은하계나 태양계의 사멸이라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도 학생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우주적 상상력을 키울 수도 있다. 래리 니븐(L. Niven)은 *At the Core*라는 단편소설에서 인류가 은하계의 연쇄폭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제시한다. 다행히 인류는 2만년이라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¹⁸⁾ 니븐이 소설에서 준비한 결말과는 상관없이 교실에서 선생

17) 폴 앤더슨, 천승세 역, 『타우 제로』, 나경문화, 1992.

18) 래리 니븐은 장편소설 『링 월드』에서 이 설정을 소설의 출발점에 놓는다. 이

님은 학생들과 인류가 과연 어떤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할 수 있다.

한편 가까운 미래에 지구의 운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 태양표면의 강렬한 폭발만으로도 달이 미친 듯이 밝아지면서 지구에는 엄청난 재앙이 된다.¹⁹⁾ 새로운 유형의 태양방사선도 치명적일 수 있다. 리처드 윌슨(R. Wilson)의 *The Carson Effect*에서도 인류에게 치명적으로 유독한 가스구름이 지구에 접근하고, 그 가스구름은 결국 지구를 덮치고 지나간다. 인류는 어떻게 됐을까? 윌슨의 소설에서 인류는 살아 남는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구의 오염이 너무나 심각해서 인류에게 이미 유독가스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서 C. 클라크의 『라마와의 랑데뷰(Rendezvous with Rama)』²⁰⁾에서 인류는 좀 더 현실적인 위협인 거대한 운석의 충돌에 맞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안한다. 그레고리 벤포드(G. Benford)의 단편소설 *Icarus Descending*에서 문제는 좀 더 미묘한 양상을 띠는데, 다가오는 거대한 소혹성의 궤도를 바꾸려고 두 우주비행사가 폭탄을 갖고 운석에 접근한다. 그런데 그 소혹성은 알고 보니 버려진 외계인의 거대한 우주선이었고. 비행사 중의 한 명은 외계인과 그들의 문명에 대한 엄청난 정보가 담겨있는 그 우주선을 폭파하기를 망설인다. 망설일수록 지구는 위험해지지만 어쩌면 그 우주선 안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앞선 문명의 유산이 담겨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학생들은 서로

소설은 1970년 휴고상과 1971년 네블러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서계인 역, 도서출판 여울, 1993. 세계 10대 SF에도 꼽히곤 하는 작품인데, 유감스럽게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

19) 달이 미친듯이 밝아지는 밤의 이야기는 래리 니븐의 *Inconstant Moon*이란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정영목 번역의 『세계 SF 걸작선』에 『변하는 달』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다. 도솔, 1993.

20) 아서 클라크, 박상준 역, 『라마와의 랑데뷰』, 현대정보문화사, 1991.

의견을 나눌 수 있다.

H.G. 웰즈의 「우주전쟁」 이래로 외계인의 지구침공은 공상과학소설의 단골메뉴이다. 핵폭발의 대재앙도 그렇고. 레이 브래드버리(R. Bradbury)의 단편소설 *There Will Come Soft Rains*에서 인류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사라져버린 지구의 모습이 소름끼치는 적막감으로 묘사된다.²¹⁾ 브라이언 W. 올디스(B.W. Aldiss)의 *Barefoot in the Head*에서 유럽은 환각제의 세례를 받으며, 조지 R. 스투어트(G.R. Stewart)의 *Earth Abides*나 리처드 윌슨(R. Wilson)의 *Mother to the World*에서 인류는 새로운 질병의 위협에 노출된다. 마이클 크리튼의 『안드로메다 스트레인(The Andromeda Strain)』²²⁾처럼 외계에서 날라 오는 질병도 있다. 인구과잉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존 브런너(J. Brunner)의 *Stand on Zanzibar*는 인구과잉의 문제를 포함해서 어둡고도 생생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한다. 좀 더 극단적으로 필립 호세 파머(Ph.H. Farmer)의 *The Sliced-Crosswise Only-on-Thuesday*라는 기이한 제목의 단편소설이 있다. 이 소설에서는 인구과잉 문제에 대한 훌륭한(?) 해결책이 제시된다. 인류는 서로 번갈아가며 일주일 중의 하루만 깨어나서 활동하고 남은 엿새 동안은 잠만 자는 것이다. 자동차 칠부제의 극단적인 모습이라고나 할까.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학적 대재앙도 인류의 미래에 치명적이다. 비록 지금부터 먼 미래에 지구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별에서 벌어지는 일 이긴 해도 프랭크 허버트의 『들퉼(Dune)』²³⁾도 지구의 미래에 관한 생태학

21) 동, 서 냉전의 절정기에 발표된 이스라엘 작가 모르데카이 로쉬발트의 「제7지하 호」란 작품은 앞서도 언급했는데, 인류 최후의 생존자가 마지막에 눈을 감는 순간의 충격적인 여운은 가슴이 저미는 경험이다. 비록 동, 서 냉전의 시대는 지나갔으나, 여전히 핵의 위협은 존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더불어 살아 남는’ 인간관계의 문제와 환경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작품이다.

22) 마이클 크리튼, 정성호 역, 『안드로메다 스트레인』, 명지사, 1992.

적 관점에서 흥미 있는 소설이다. 아더 허어조그(A. Herzog)의 *The Swarm* 처럼 곤충들의 위협도 있고, 마이클 무어콕(M. Moorcock)의 *The Ice Schooner* 처럼 빙하기의 재림도 있고, D.F. 존스(D.F. Jones)의 *Implosion* 처럼 불임의 문제도 있다. 그밖에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다채로운 재앙들이 거론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공상과학소설에서 나타나는 대재앙이라는 문제를 다루다보면 학생들은 결국 이러한 대재앙들이 지금, 이곳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에 다다를 수도 있다.

4-2. 하나의 연합세계

얼마 전 우리나라 외무부장관이 UN의 의장이 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UN이 이러한 위기상황에 무언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UN이 지구적 차원의 위기상황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유럽이 하나로 묶이고, 아시아가 하나 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때에 공상과학소설에서 하나의 연합세계라는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었을까?

아서 C. 클라크의 『유년의 끝(Childhood's End)』²⁴⁾에서 하나의 연합세계는 이를테면 과도기적인 유토피아에의 약속 같은 것이다. 그러나 코드 웨이너 스미스(C. Smith)는 *Under Old Earth*라는 단편소설에서 한 인물로 하여금 모든 것이 충족된 유토피아보다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던 옛 시절을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꼈던 시절로 회상하게 한다. 하나의 연합세

23) 프랭크 허버트, 강무홍, 박정선 역, 『둔』, 풀빛, 1992.

24) 아서 C. 클라크, 정영목 역, 『유년의 끝』, 시공사, 2002. 과도기적인 단계를 벗어난 초월적인 맥락에서 시어도어 스테전의 『인간을 넘어서』에는 ‘호모 게슈탈트’라는 표현이 나온다. 아서 C. 클라크, 위의 책.

계와 관련해서 그 세계의 정치적 체제 또한 공상과학소설 작가들의 관심이었다. 로버트 A. 하인라인의 『우주의 전사(Starship Troopers)』²⁵⁾는 이런 맥락에서 논쟁적인 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하나의 연합세계는 선거권을 의무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만 부여하고, 세계민들에게 의무와 권리의 완벽한 조화를 이야기한다. 어슐라 K. 르 귄(U.K. Le Guin)은 『빼앗긴 자들(The Dispossessed)』²⁶⁾에서 우라스와 아나레스라는 두 세계를 제시한다. 우라스는 지구와 비슷하고, 아나레스는 오로지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근거한 자발적인 무정부주의적 공동체 사회이다. 그레고리 벤프드(G. Benford)의 단편소설 *Deeper than the Darkness*는 동양적 전통의 세계정부를 제시한다. 경우에 따라 지구는 상인들과 그들의 경제적 관심에 의해 통치되기도 하고, 범죄조직이 미국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주 있는 일이지만 외계인이 지구를 지배하기도 한다. 물론 컴퓨터가 지구를 다스리기도 한다. 봉건주의적 체제도 심심치 않게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한다.²⁷⁾

많은 공상과학소설 속에는 권력을 손아귀에 넣은 한 개인이 등장한다. 노먼 스피라드(N. Spinrad)는 *The Iron Dream*이라는 흥미로운 소설을 쓰는데, 이 소설 속에는 「스와스티카의 군주」라거나 「세계의 주인이 되는 종족」, 「천년통치」, 「의지의 승리」 등의 다른 소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소설들은 히틀러가 쓴 것들이다. 소설 속에서 히틀러는 일차대전 후 미국으로 이민 온 공상과학소설 작가로 설정되어 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생들은 이런 식의 대체역사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그밖에 미래에 인류가 살게 될 세상과 그 세상의 체제

25) 로버트 하인라인, 전옥수 역, 『우주의 전사』, 관일 미디어, 1997.

26) 어슐라 K. 르 귄, 이수현 역, 『빼앗긴 자들』, 황금가지, 2002.

27) 랜달 개릿의 다아시경과 노르망디 대공의 주임법정 마법사 손 오 로클란을 중심 인물로 한 소설들은 과학대신 마술문명이 발달하는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다아시경의 모험』이나 『마술사가 너무 많다』 참조할 것.

에 대한 많은 공상과학소설들이 있다. 이 소설들 속에서 학생들은 현대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의 다양한 전개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²⁸⁾

지역과 국가의 경계가 없이 하나로 통합된 연합세계를 다룬 공상과학소설들은 다양하다. 이 소설들 속에는 세계정부의 모습이라든지, 소수집단이나 아웃사이더로서 개인의 문제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지만, 그래도 인류의 미래를 하나가 된 지구에 걸어볼만하다고 생각하는 젊고, 이상적인 경향의 학생들이라면 공상과학소설을 통해 그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4-3. 역할들

맥킨니에 따르면, 인류의 미래에 관한 흥미있는 질문 중의 하나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맥킨니는 그 역할들을 전통적 역할들과 새로운 역할들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다.

4-3-1. 전통적 역할들

미래는 당연히 과거의 연속이고, 지금 이 세상을 구성하는 제도들은 이미 그 안에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를 다루는 공상과학소설에서 지금의 국가개념은 사라지곤 하지만 비교적 가까운 미래를 다루는 경우 지금의 국가개념은 여전히 살아 있다. G.C 에드먼슨(G.C. Edmondson)의 *Chapayeca*는 멕시코를 배경으로

28)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까운 미래에 예측 가능한 자유주의와 시민주의의 갈등에 관해 에인 랜드의 「아틀라스」를 볼 것. 정명진·신예리·조은옥 역, 민음사, 2003. 닐 스티븐슨의 「크립토노미콘」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교차하면서 인간관계가 얽히고, 암호와 보물찾기의 모험이 전개되다가 궁극적으로 무국가 사회라는 비전이 제시된다.

하고 있고 필립 K. 딕(Ph.K. Dick)의 단편소설 *Faith of our Fathers*는 베트남과 중국이 배경이다. 그밖에도 브라질, 북아프리카, 이스라엘, 터키 등 다양한 국가들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여기에는 강대국들에 대해 작은 나라들의 생존의 문제들이 있고, 강대국들은 강대국들대로 책임의 문제가 있으며, 신생 산업국들이 당면하는 온갖 문제들도 있다. 해리 해리슨(H. Harrison)의 *The Daleth Effect*에서 한 과학자가 가상중력의 비밀을 안고 텐마크로 망명하자 텐마크는 갑자기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 채드 올리버(Ch. Oliver)의 단편소설 *Far from this Earth*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 있는 한 아프리카의 국가가 다루어지며, 크리스 네빌(Ch. Neville)의 단편소설 *Cold War*에서 미국은 위성시스템을 통해 세계를 통제하는 강력한 경찰국가가 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지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해볼 수 있다.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상황 또한 흥미로운 경우일 것이다. 크리스토퍼 프리스트(Ch. Priest)의 *Fugue for a Darkening Island*에서는 핵전쟁이 아프리카에서 벌어진다. 그 결과는?

공상과학소설에서는 가상의 국가들도 자주 등장한다. 존 브런너(J. Brunner)의 *Stand on Zanzibar*에서 베니니아와 야타칸, 아서 C. 클라크(A.C. Clarke)의 단편소설 *A Slight Case of Sunstroke*에서 페리비아와 파나구아라,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그리고 이스타시아 등²⁹⁾. 이들은 모두 가상의 국가들이긴 하지만 현재 지구의 국가들과도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다. 한편 어슐라 K. 르 귄의 『어둠의 왼손(The Left Hand of Darkness)』³⁰⁾에서 묘사되는 가상국가들을 독특한 문학적 상상력의 산

29) 조지 오웰, 김순녀 역, 『1984』, 청목사, 2000.

30) 어슐라 K. 르 귄, 서정록 역, 『어둠의 왼손』, 시공사, 2002.

물들이다. 잭 반스(J. Vance)의 *The Last Castle*에서 세계는 국가라기보다는 제목에서도 암시되고 있는 것처럼 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적지 않은 공상과학소설들 속에서 여전히 UN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연합 정부의 경우에도 그 모습은 오늘날 UN을 많이 닮아 있다. UN의 강력한 힘이라면 래리 니븐(L. Niven)의 단편소설 *The Defenseless Dead*에서 나오는 UN 경찰, 일명 ARMs를 생각해볼 수 있다. ARM은 the Amalgamated Regional Militia에서 온 말인데, 특히 인간의 장기이식을 둘러싼 범죄조직들을 추적한다. UN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 연합도 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연합이라거나 유럽 연합, 또는 아랍 연합 등인데, 딘 맥러플린(D. McLaughlin)의 *Dome World*는 아메리카 연합이 배경이다. 군대라는 조직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앞서서도 언급한 로버트 A. 하인라인의 『우주의 전사』는 한 마디로 군인을 키워내는 이야기이고, 조 홀드먼(J. Haldeman)의 『영원한 전쟁』³¹⁾은 하인라인의 영웅주의보다는 좀 더 풍자적이다.

미래에 종교라는 전통적 역할은 어떻게? 로버트 실버버그(R. Silverberg)는 *Good News from the Vatican*이란 단편소설에서 로봇교황을 선출한다는 장난끼가 느껴지는 문제를, 아서 C. 클라크(A.C. Clarke)는 *The Star*라는 단편소설에서 신의 심판과 은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며, 제임스 블리쉬(J. Blish)는 *A Case of Conscience*에서 원죄에서 자유로운 리시아라는 세계를 묘사한다. 마이클 무어콕(M. Moorcock)의 *Behold the Man*에서는 타임머신이 등장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의 시대로 돌아가는데, 그만 그 자신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만다. 그렇다면 미래의 지구에서 신의 역할은 어떻게 변할까? 로저 젤라즈니(R. Zelazny)의 *Isle of the Dead*나 『내 이름은 콘라드(This

31) 조 홀드먼, 강수백 역, 『영원한 전쟁』, 시공사, 1996.

Immortal)』³²⁾ 같은 소설들이 있고, 레스터 텔 레이(L. del Rey)의 단편소설 *Evensong*에서 인류는 마침내 자신의 창조주와 동등한 존재가 되었다가 결국 그를 초월하고 만다. 이 맥락에서 기억할만한 소설은 아서 C. 클라크(A.C. Clarke)의 *The Nine Billion Names of God*라는 단편소설이다. 이 소설에서 티벳의 승려들이 컴퓨터의 도움으로 신이 만든 90억개의 이름을 모두 목록화 했을 때 무슨 일인가 벌어진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생들은 미래의 세계에서 과학자, 예술가, 스포츠맨 그리고 지식인의 역할들을 상상해볼 수 있는데, 인류의 지적 능력과 관련해서 돌연변이의 문제도 흥미롭다. A.E. 보그트(A.E. Vogt)의 *Slam*은 돌연변이로 놀라운 지적 능력을 갖게 된 슬랜인들과 보통사람들에 의해 그들에 가해지는 박해행위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학생들은 집단적 주체의 역할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상에서 한 개인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³³⁾에서 해리 셸던은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심리역사학을 창안하여 암흑시대 이후 은하계의 재건설을 준비한다.³⁴⁾

미래의 세계에서 그려지는 여성의 역할은 현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남성에게 종속되거나, 남성의 구원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단지 성적 대상에 불과할 경우가 많다. 물론 남성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도 있는데, 조안나 러스(J. Russ)의 단편소설 *When It Changed*를 예로 들 수 있다.³⁵⁾

32) 로저 젤라즈니, 강수백 역, 『내 이름은 콘라드』, 시공사, 1995. 비슷한 맥락에서 젤라즈니의 문제작 『신들의 사회』는 인도신화를 배경으로 한 뉴 에이지 SF라 할 수 있다. 김상훈 역, 정신세계사, 1993.

33) 아이작 아시모프, 김옥수·최서래 역, 『파운데이션』, 현대정보문화사, 1992.

34) A.E. 보그트는 『우주선 비이글호』에서 정보종합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한 엘리엇 글로브너를 주인공 영웅으로 등장시킨다. 아시모프의 심리역사학은 감조차 잡기 어려울 정도로 수학과 통계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학문이지만, 보그트의 정보종합학은 일종의 시스템 학문이 전개되는 요즈음 대중 감을 잡을 수 있는 학문이라 여겨진다. 오학영 역, 동서문화사, 1978.

35) 하이텔 번역모임 멋진 신세계가 옮긴 『세계여성소설 걸작선1, 2』에는 조안나

시어도어 스테전(Th. Sturgeon)의 *Venus Plus X*는 양성체를 다룬다. 앞에서 언급한 어슐라 K. 르 쿤의 『어둠의 왼손』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케텐이라는 별의 주민들은 특정 수태기를 제외하고는 성이 없으며 그 수태기 동안에는 그 때 그 때의 상태에 따라 남성이나 여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식들에게 경우에 따라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극단주의자들의 역할이 있다. 맥 레이놀즈(M. Reynolds)의 단편소설 *Pacifist*를 보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폭력행위를 감행하는 일군의 평화주의자들이 나온다. 실제 현실의 역사는 더욱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광기의 경향을 보여주는데, 교실에서 학생들은 이러한 광기의 극단주의가 미래로 계속 이어질지 고민해 볼 수 있다.

4-3-2. 새로운 역할들

공상과학소설에는 현재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설령 볼 수 있더라도 아주 초보적인 모습일 뿐인 새로운 역할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먼저 보통 콜로니스트라고 불리우는 우주 식민지의 거주민들을 생각할 수 있다. 화성이나 목성, 또는 그밖에 어떤 별에서도 가능한 역할인데, 이미 『전담』이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 개념에 익숙한 학생들이 많다. 로버트 A. 하인라인의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The Moon is a Harsh Mistress)』³⁶⁾은 지구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달의 거주민들 이야기이고, 아서 C. 클라크의 『라마와의 랑데뷰』에서 우리는

리스 외에도 코니 윌리스 등의 작품들이 실려 있다. 여성사, 1994.

36) 로버트 하인라인, 임창성 역,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앞세, 1992. 달 정착민들이 등장하는 우리나라 SF로 복거일의 『파란 달 아래』가 있다.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정한 상황을 배경으로 PC통신에 연재되어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품이다. 남북문제의 미래에 대해 교실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일 수 있다.

항성연합의 대표자들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여행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학생들의 관심도 상당한데, 우주 식민지와 관련해 몇 가지 학생들과 생각해볼만한 문제가 있다. 첫째는 우주탐사를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주 탐사에 드는 비용이면 지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는 일단 우주 식민지가 개척되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해결해야 할 난관도 많다. 래리 니븐(L. Niven)의 *A Gift from Earth*에서 우주 식민지의 거주민들은 중력이 지구의 60배나 되고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별의 높은 고원지대만이 유일한 정착지라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문제는 우주 여행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해결됨으로써 열리는 광활한 우주문명의 역사이다. 사무엘 R. 델레이니(S.R. Delany)의 *Nova*나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이 있다.

우주가 아니라도 지구 내에서 새로운 콜로니스트들의 역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바다 밑이 있다. 할 클레멘트(H. Clement)의 *Ocean on Top*에서는 의학과 생물학의 도움으로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들에 대한 실험이 진행된다. 제임스 블리쉬와 노먼 L. 나이트(J. Blish & N.L. Knight)는 그들이 함께 쓴 *A Torrent of Faces*에서 물 속 존재를 트리톤인이라고 부르는데, 트리톤인들은 점점 세계 정부에 좀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테리 멜렌(T. Melen)은 단편소설 *Whale Song*에서 고래가 삼천만년 전에는 육지에서 도시문명을 세운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고래는 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육지를 버리고 바다를 택한 것이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인 존재는 미래의 세계에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³⁷⁾에서 카렐 차페크의 『R.U.R.』

을 거쳐 현대의 사고하는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이 존재는 공상과학소설의 단골메뉴이다. 로봇 이야기의 대표적 작가라면 아이작 아시모프를 꼽을 수 있다. 그의 『로봇(Robot)』³⁸⁾에 보면 양전자 로봇의 3대 준수사항이 나온다. 첫째, 로봇은 인간을 해쳐서는 안된다. 둘째, 로봇은 첫째 규정에 모순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로봇은 첫째, 둘째 규정에 모순되지 않는 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한편 폴 앤더슨(P. Anderson)의 *Goat Song*이나 할란 엘리슨(H. Ellison)의 *I Have No Mouth, and I Must Scream*과 같은 단편소설들에서 컴퓨터는 포악한 독재자들이다. 레스터 텔 레이(R. del Rey)의 단편소설 *Helen O'Loy*는 자기가 만든 로봇을 그만 사랑하게 되어버린 남자의 이야기이다. 로봇이지만 실제로 인간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안드로이드들을 다룬 대표적인 소설은 필립 K. 딕의 『앤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³⁹⁾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릭 테카아드는 도망친 안드로이드들을 추적하는 현상금 사냥꾼이지만, 소설은 “그런데 릭은 과연 인간일까?”라는 미묘한 문제를 던진다. 기계적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실험의 산물인 복제인간의 문제도 심각하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만드는 자와 만들어진 자의 책임과 의무의 관계인데, 로봇이든, 안드로이드든, 복제인간이든 여전히 인간의 노예일 뿐인가? 아니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미래의 세계에서 외계인의 역할이 있다. 이 주제는 할 클레멘트의 『중력의 임무(Mission of Gravity)』⁴⁰⁾를 포함해서 공상과학소설

37) 메리 셸리, 오숙은 역, 『프랑켄슈타인』, 미래사, 2002. 같은 해 인디북에서 나온 서민아의 번역도 있다.

38) 아이작 아시모프, 정철호 역, 『로봇』, 현대정보문화사, 1992.

39) 필립 K. 딕, 정태원 역, 『앤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글사랑, 1992.

40) 할 클레멘트, 안정희 역, 『중력의 임무』, 시공사, 1996.

의 어떤 주제와도 쉽게 관련이 된다. 물론 우리는 아직 외계인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그러나 끊임없이 보도되는 UFO 소식과 함께 이 역할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할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다.

4-4. 새로운 발견과 발명들

인쇄술이라든지, 증기기관, 페니실린, 또는 핵폭탄 등을 생각해보면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곤 한다. 꼭 커다란 변화가 아니더라도 기술의 영역과 인류의 문화, 사회, 경제, 정치의 영역들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인류의 역사는 기술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하는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통해 학생들은 미래의 삶이 어떤 모습일 지 꿈 꾸볼 수 있다. 릭 라파엘(R. Raphael)의 소설 *Code Three*는 점점 강력해져가는 자동차로 인한 고속도로의 악몽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프랭크 M. 로빈슨(F.M. Robinson)의 단편소설 *East Wind, West Wind*에서는 자동차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반면에 로저 젤라즈니(R. Zelazny)의 *The Dream Master*에서 자동차는 완벽하게 안전해진다. 컴퓨터에 의한 교통 통제도 정교해지지만, 교통경찰과 운전자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될 것인지? 공상과학소설 속에 등장하는 대안 교통수단 중에는 이제는 상식적이 되었지만 ‘굴러가는 도로’가 있다. 여러 다양한 미래의 교통수단 중에서 우주여행의 수단인 우주선이 공상과학소설의 핵심적인 교통수단일 것이다. 해리 마틴슨(H. Martinson)의 *Aniara*에서 등장인물들은 우주선을 집으로 삼아 영원히 지구를 떠난다. 낯선 외계를 탐사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언급한 할 클레멘트의 『중력의 임무』를 참조할 수 있다.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하는 운송수단 중 가장 황당한 것은 소위 ‘teleportation’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적 의미의 어떤 교통수단도 없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순간이동하는 방식이다. 물론 소위 ‘displacement booth’라는 장치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장치의 무분별한 사용은 미래의 사회에 해결해야 할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알프레드 베스터는 이 순간이동을 ‘jaunting’이라 부르는데, 소설 「타이거, 타이거(The Stars My Destination)」⁴¹⁾에서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거론한다.

영생은 인류의 꿈이다. 일련의 공상과학소설에서는 젊음을 유지시켜 주는 약물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코드웨이너 스미스(C. Smith)의 작품에 등장하는 ‘스트룬’이라는 약물이 그것인데, 이것은 오직 노스트릴리아라는 별에서만 번식할 수 있는 거대한 돌연변이 양에게서만 추출된다. 아니면 냉동인간도 있다. 클리포드 D. 시맥(C.D. Simak)의 *Why Call Them Back from Heaven?*⁴²⁾에서 미래의 인류는 대부분 냉동 후 다시 깨어날 세상에 집착한다. 로버트 하인라인의 『여름으로 가는 문(The Door into Summer)』⁴²⁾도 냉동인간을 다룬다. 밥 쇼우(B. Shaw)의 *One Million Tomorrows*에서 인간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약물을 찾아낸다.⁴³⁾ 그런데 약물의 효과는 좋지만 단 하나, 이 약물은 남성의 성적 충동을 파괴한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그림이 떠오르지 않는가? 한편 인구문제도 못지않게 심각하다. 결국 모두 다 장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져야 할까? 그리고 그 결정은 누가 내리는 것일까?

매체는 미래에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맥킨니가 이 작업을 할 때만해도 아직 실감나지 않았던 모바일 매체는 벌써 우리 일상 삶의 한 부분이

41) 알프레드 베스터, 하경혜 역, 『타이거, 타이거』, 꿈이 있는 집, 1993.

42) 로버트 하인라인, 임창성 역, 『여름으로 가는 문』, 앞세, 1992. 로버트 세클리의 『불사판매주식회사』는 미래세계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부딪히는 심령현상과 사후세계의 문제까지 이야기에 녹여 담아낸다.

43)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소마’라는 약물은 생명연장은 아니더라도 일종의 마약과 같은 행복약이라 할 수 있다. 그렉 이건의 『퀴런틴』에는 인간의 능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상시키는 모드라는 장치가 나온다.

되었다. 이제 학생들 대부분은 홀로그램 테크닉을 사용한 삼차원 입체영상 TV를 쉽게 떠올릴 것이다.⁴⁴⁾ 노먼 스피라드(N. Spinrad)는 *Bug Jack Barron*에서 TV가 대중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을 다루고 있다.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씨 451(Fahrenheit 451)』⁴⁵⁾에서 묘사되는 세계는 TV만이 유일한 매체인 통제사회이다. 가정마다 TV 수상기가 벽 전면을 메운다. 책은 사회에 위협적이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한다는 이유로 금지된다. 책 제목인 화씨 451도는 종이에 불이 붙는 온도이다. 로버트 셰클리(R. Sheckley)의 단편소설 *The Prize of Peril*은 목숨을 건 퀴즈쇼를 다룬다. D.G. 컴프튼(D.G. Compton)은 *The Unsleeping Eye*에서 시청률을 목적으로 인간의 사생활에 침투해 들어오는 TV를 묘사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눈을 TV 카메라의 렌즈로 바꿔치고 병든 여인에게 접근한다. 시청자들은 그 여인이 죽기 전 며칠 동안의 삶을 구경한다. 물론 그 여인에게는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학생들은 무언가 기묘한 느낌으로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매체환경을 돌이켜볼 수 있다.

미래세계의 범죄를 다룬 공상과학소설들도 있다.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 불법 신체이식이라든지 불법 텔레포테이션의 문제들, 또는 불법 시간여행⁴⁶⁾이나 불법 생명복제의 문제들도 있다. 래리 니븐(R. Niven)의

44) 아이작 아시모프는 중편소설 「골드」에서 연극에서 배우가 사라진 미래를 묘사한다. 이제 무대에는 햄릿이나 맥베스를 연기하는 매혹적인 홀로그램의 이미지들이 관객을 사로잡는다. 김민식·김선형 역, 한뜻, 1996.

45) 레이 브래드버리, 박상준 역, 『화씨 451』, 시공사, 2001.

46) 시간은 공상과학소설의 중요한 소재이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그레고리 벤포드의 『타임 스케이프』에는 빛보다 더 빠른 입자 타키온이 등장한다. 정성호 역, 새싹나라, 1992. 시간여행과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 영역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폴 앤더슨의 『타임 패트롤』이 번역되어 있다. 강수백 역, 시공사, 1995. 앤더슨의 시간 관리국 타임 패트롤의 영향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누비고 다니는 특수작전망의 시간경비대가 등장하는 제스퍼 포드의 『제인에어 납치사건』이 있다. 송경아 역, 북하우스, 2003. 한편 코니 윌리스는 『개는 말할 것도 없고』에서 시간

단편소설 *The Jigsaw Man*에서 교통법규 위반은 사형죄로 다스려질 정도로 치명적인 범죄이다. 클리포드 D. 시맥(C.D. Simak)의 *Time and Again*에서 19세기식 결투는 합법적이다. 미래에 경찰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 자라면 범죄자는 진땀캐나 뺨 텐데, 알프레드 베스터의 『파괴된 사나이 (The Demolished Man)』⁴⁷⁾에 나오는 경찰이 그런 능력자이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벌거벗은 태양(The Naked Sun)』⁴⁸⁾에서 인간과 로봇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등장시킨다. 피어스 안소니와 로버트 E. 마그로프(P. Anthony & E. Margroff)가 함께 쓴 *The Ring*은 미래에서 범죄예방의 문제를 다룬다. 우선 인간의 손가락에 반지를 이식하는데, 그 반지는 인간이 무언가 그른 생각을 할 때마다 충격을 가한다. 이미 윤리 코드가 인간의 마음속에 이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충격의 강도는 계속 커진다. 그러나 이 반지를 제거한 범죄자의 습격을 받을 때 문제는 심각하다. 그 범죄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쓰려고 할 때마다 반지는 충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선생님은 학생들과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만일 어린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도 그 아이를 구하려 하지 않으면 반지는 윤리 코드가 반응하는 대로 충격을 가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수영금지구역에서 수영하고 있었다면 반대로 그 아이를 구하려 할 때 반지는 충격을 가할 것이다.

미래 세계에서 벌어지는 범죄뿐만 아니라 처벌 문제도 흥미롭다. 로버트 실버버그(R. Silverberg)의 단편소설 *To See the Invisible Man*과 클리포

여행의 건드러짐을 제대로 잡으려는 어떤 거대한 힘의 자발적인 작용을 상정한다. 최용준 역, 열린책들, 2001.

47) 알프레드 베스터, 강수백 역, 『파괴된 사나이』, 시공사, 1996. 공상과학소설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이런 초능력자들을 보통 에스퍼(ESPER)라 부른다.

48) 아이작 아시모프, 정태원 역, 『벌거벗은 태양』, 고려원미디어, 1992. 정철호 번역으로 모두 6권으로 나온 현대정보문화사의 『로봇』 시리즈에도 포함되어 있다.

드 D. 시맥(C.D. Simak)의 단편소설 *Eternity Lost*에서 범죄자는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된다. 몸에 표식을 붙이고, 누구와의 접촉도 거부된다. 삶에 가장 기본적인 물과 음식만을 공급 받을 뿐 어떤 문화생활도 어떤 오락도 금지된다. 실버버그(R. Silverberg)의 또 다른 소설 *Hawkbill Station*에서 정치범들은 시간여행을 통해 십억 년 전의 지구로 보내진다. 토마스 M. 디쉬(T.M. Disch)의 *Camp Concentration*에서도 정치범들의 처벌은 가혹하다. 약물의 실험용 모르모트로 쓰이게 된다.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D.E. Westlake)는 단편소설 *The Winner*에서 ‘Guardian System’이라는 처벌을 소개한다. 죄수들은 피부 밑에 작은 전파 수신기를 이식하고 수용소 내에 원하는 곳에 머문다. 그가 수용소 중심에서 전파를 보내는 단말기에서 필요 이상으로 멀어지면 그 작은 전파 수신기는 곧 신경계에 고통스런 자극을 보내기 시작한다. 그 고통의 강도는 멀어질수록 견딜 수 없어질 정도로 증폭된다.

교육적 차원에서 대체 역사를 다루는 공상과학소설도 흥미로운 것이다.⁴⁹⁾ 필립 K. 딕의 『높은 성의 사나이(The Man in the High Castle)』⁵⁰⁾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이 패배했을 때를 가정한 소설이다.⁵¹⁾ 키스 로버츠(K. Roberts)의 *Pavane*는 영국이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하지 못했다면 벌어지게 될 가상 역사를 그린다. 워드 무어(W. Moore)의 *Bring the Jubilee*는 남북전쟁 시 남군이 승리했다는 가정 하에 쓰여진 소설이고, 필립

49) 대체역사가 역사학이라는 현재의 학문을 공상과학적으로 비튼 영역이라면 각주 35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아시모프가 『파운데이션』에서 제안한 심리역사학이라는 엄청난 스케일의, 지금으로서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학문도 있고, 반 보그트가 『우주선 비이글호』에서 반세기도 더 전에 제안하는, 요즘은 시스템공학과 비슷한 뉴앙스의 정보종합학이라는 학문영역도 있다.

50) 필립 K. 딕/오근영 역, 『높은 성의 사나이』, 시공사, 2001.

51) 우리나라의 경우로는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가 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일본의 식민지 시대가 계속된다는 가정하의 이야기이다.

호세 파머(Ph. H. Farmer)의 단편소설 *Sail On! Sail On!*에서 불쌍한 콜럼부스는 그만 지구의 모서리 아래로 떨어지고 만다. 지구는 평평했던 것이다!

이제 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하는 새로운 발견과 발명들을 통해본 미래 세계의 변화를 몇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새로운 변화에는 감춰진 측면이 있다. 새로운 것의 효과는 애초의 의도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띤다. 둘째, 과학과 기술의 변화를 사회적, 정치적 변화로부터 따로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다. 기술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상응하는 과장을 일으킨다. 역으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는 너무 독특하고 혁명적이어서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학생들의 상상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 것인가.

4-5. 공상과학소설을 통해본 미래사

미래는 광활하다. 로버트 A. 하인라인이 ‘미래사(future histories)’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사실 미래의 범위가 너무 커서 사실 한 권의 소설로 묘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많은 공상과학소설들이 연작의 형태를 취한다. 물론 레이 브래드버리의 『화성연대기(The Martian Chronicles)』⁵²⁾처럼 한 권에 시도한 작품들도 있지만, 마모루 나가노라는 일본의 만화가는 *Five Star Stories*라는 작품 서두에 그 작가가 평생에 걸쳐 써도 불가능할 것 같은 은하력을 먼저 제시하고 작업에 들어간다.

1912년에 *All Story Magazine*이라는 잡지에 *Under the Moons of Mars*가

52) 레이 브래드버리, 조윤경 역, 『화성연대기』, 모음사, 1990.

실린 이래 1948년 출판된 *Llana of Gathol*까지 에드가 라이스 버로우즈의 화성 이야기는 SF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연작 시리즈이다.⁵³⁾ 에드워드 E. 스미스(E.E. Smith)의 렌즈맨 연작소설들도 재미있는 모험소설들인데, 정의로운 아리시안인들과 사악한 에도레안인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 사이에서 아리시안인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초인그룹인 렌즈맨들이 등장한다. 올라프 스태플돈(O. Stapledon)의 연작소설의 스케일은 정말로 광활하다. 오늘날 최초의 인류에서 시작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000,000년 후 해왕성에서 발생하는 최후의 인간의 죽음까지 다루어지는데 사실 이 기간은 스태플돈이 언급하는 우주의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세계들의 존재들까지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전능한 별들의 창조자, 아마도 신이라 불리울 수 있는 존재까지 이르게 된다. 스태플돈의 소설들은 단순한 모험소설이 아니며, 이 소설들에는 인류의 미래에 관한 철학이 담겨져 있다.

튜마레스트를 주인공으로 하는 E.C. 튜브(E.C. Tubb)의 연작소설들은 보통 ‘스페이스 오페라’라 칭하는 모험소설로 분류되지만, 예를 들어 *The Eye of the Zodiac* 같은 소설을 보면, 테라라는 별에서 태어난 얼 튜마레스트는 이제 전설이 된 지구가 있던 은하계의 중심을 향해 항해하면서 자신의 뿌리의 근원을 추구한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은 이런 맥락에서 뿌리를 추구하는 미래사의 한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그의 로봇 시리즈 역시 추리와 공상과학소설을 결합시킨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로버트 A. 하인라인의 미래사 연작도 중요한 작품들이다. 대략 20세기 중반 경부터 43세기까지를 포함하는 이 작품들에서 하인라인은 인류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영역의 변화들을 따라간다. 에드

53) 에드거 라이스 버로우즈, 오학영 역, 『화성의 프린세스』, 동서문화사, 1978.

가 팡본(E. Pangborn)은 무엇보다도 지구의 미래사에 집중한 작가이다. 그의 미래사는 우울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74년작 *The Company of Glory*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성에 대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코드 웨이너 스미스(C. Smith)의 미래사는 대단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쓰여진 다. 그것은 아테네 비극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시작 - 중간 - 결말과 같은 방식이 아니다. 차라리 중세의 전설들과 같이 순환적이다. 논리적 역사서술의 방식이라기 보다는 감성적 일화들이 환기하는 기묘한 관계들과 상황들의 미래사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관심을 갖는 고든 덕슨(G. Dickson)의 연작소설들이 있으며, 폴 앤더슨의 휴머니즘에 근거한 포괄적인 미래사도 있다. 어슐라 K. 르 쿤은 특히 인간과 인간, 사회와 사회의 관계적 측면에 진지한 조명을 던지는 연작소설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1975년부터 3100년까지를 꿰뚫고 있는 래리 니븐의 미래사에는 작가의 다양한 관심사들이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로 전개된다.

비록 간략하게 훑어보는 기분으로 언급한 모양새가 되었지만 이 작품들은 저마다 대단한 내공의 산물들이다. 광대한 우주의 미래사라는 틀은 공상과학소설의 예술적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현실화하는 적절한 양식이며 청소년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매력적인 토양이기도 하다.

5. 나가면서

이 글의 영감의 근원인 맥킨니의 작업이 70년대 중반까지의 작품들로 제한되어 있고, 또 이 글을 쓴 필자 자신의 제한된 경험이라는 한계도

있지만, 이런 제한과 한계들은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관심과 경험으로 얼마든지 보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80년대 사이버 펑크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윌리엄 김슨의 『뉴로맨서』라는 중요한 작품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으며⁵⁴⁾, 실제로 학생들의 일상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타 워즈』나 『매트릭스』 같은 영화, 『20세기 소년』 같은 만화, 『공각기동대』 같은 애니메이션, 「V」 같은 TV 드라마 등도 교실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일단 문학으로서 공상과학소설의 매력이 이 글의 출발점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원작소설의 영상화 작업이 더 흥미로울 때도 있는데,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스페이스 오디세이2001』⁵⁵⁾이나,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솔라리스』⁵⁶⁾, 리들리 스코트 감독의 『블레이드런너』⁵⁷⁾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물론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예를 들어 『둔』과 같은 영화는 절대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모든 공상과학소설이 미래학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아니지만, 좋은 공상과학소설은 문학적으로도 흥미롭다. 결국 모든 공상과학소설은 지금, 이곳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상과학소설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지금, 이곳의 우리 삶을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공상과학소설에서 어떤 매력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대중문학으로서 공상과학소설의 잠

54) 윌리엄 김슨, 노혜경 역, 『뉴로맨서』, 열음사, 1996.

55) 이 영화는 아서 C. 클라크의 소설에서 비롯되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2010 스페이스 오디세이』, 『2061 스페이스 오디세이』 삼부작이 김종원, 전동민, 박종성의 번역으로 나와 있다. 모음사, 1990.

56) 2003년 20세기 폭스사의 영화도 있으나 타르코프스키의 영화가 좋다. 원작은 스타니스와프 렘의 『솔라리스』이다. 강수백 역, 시공사, 1996.

57) 잊혀져가던 필립 K. 딕은 이 영화로 새롭게 조명 받았는데, 헐리웃은 그의 소설이면 무엇이든 영화로 만들기 시작했다. 원작의 제목은 『앤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이다. 정태원 역, 글사랑, 1992.

재력을 느끼는 독자가 있다면 그것은 필자의 큰 기쁨이다. 이 글은 교실에서 대중문학에 접근하는 한 가지 가능한 경우일 뿐이다. 공상과학소설 뿐만 아니라 추리소설, 환상소설, 연애소설, 무협소설, 역사소설 등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필자는 교실로 들어온 대중예술의 세 가지 경우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 여기에서 소개한 그 첫 번째 경우는 수업의 소재적인 측면에서 미래학과 공상과학소설의 결합이었는데, 미래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미학, 역사학, 철학, 여성학 등의 학문적 영역과, 추리소설, 역사소설, 연애소설, 환상, 공포소설, 모험소설 등의 장르적 영역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접근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두 번째 경우로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방식에 대한 스타일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다. 폭력공포물이나 성애에로물 같이 교실에 들어오기 만만치 않은 영역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만화, TV, 게임 등과 같이 대중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선생과 학생 간의 수평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경우로 필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교실로 들어온 전자오락게임이다. 이 영역은 이미 10여년 전에 필자보다 한세대 젊은 한정수선생과 함께 둘러본 적이 있었고, 그 글은 2006년에 나온 『대중예술과 미학』이란 책에도 포함되어 있다.⁵⁸⁾ 글의 구성은 필자가 전자오락게임에 관해 한정수 선생에게 말을 건네면, 한정수 선생이 대답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이제 10여년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 대화가 확실히 오래 된 느낌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필자와 한정수 선생과의 대화를 다시 묶어 하나의 질문으로 만들어 새로운 세대에게 던져볼 생각이다. 한 500명쯤? 그러면 우리는 30년 정도의 터울을 둔 세 세대 사이의 대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10년쯤 후에 한 번

58) 박성봉, 『대중예술과 미학』, 일빛출판사, 2006.

더 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 전자오락게임을 교실로 끌어오려는 이유는 전자오락게임이 지금 세대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만큼 기성세대가 그 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자오락게임에 관한 한 교실에서 학생들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교실로 들어오는 대중예술의 지평은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다. 교실로 대중예술을 끌어오려는 선생님들 저마다가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미래를 기대하며 필자는 부족한 글에 마침표를 찍는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가드너 도조와 편, 신영희·박현주 역, 『21세기 SF 도서관1, 2』, 시공사, 2003, 2004.
- 그레고리 벤프드, 정성호 역, 『타임 스케이프』, 새싹나라, 1992.
- 그렉 이진, 김상훈 역, 『퀴런틴』, 행복한 책읽기, 2003.
- 닐 스티븐슨, 이수현 역, 『크립토노미콘』, 이수현 역, 책세상, 1999.
- 데이빗 하트웰·캐스린 크레이머 편, 정은영·정혜정·최세민 역, 『오늘의 SF 걸작 선』, 황금가지, 2004.
- 듀나, 『태평양 횡단특급』, 문학과 지성사, 2002.
- 래리 니븐, 서계인 역, 『링 월드』, 도서출판 여울, 1993.
- 랜달 개릿, 강수백 역, 『다아시경의 모험』, 강수백 역, 시공사, 1995.
- 랜달 개릿, 김상훈 역, 『마술사가 너무 많다』, 행복한 책읽기, 2006.
- 레이 브래드버리, 조윤경 역, 『화성연대기』, 모음사, 1990.
- 레이 브래드버리, 박상준 역, 『화씨 451』, 시공사, 2001.
- 로버트 세클리, 송경아 역, 『불사판매주식회사』, 행복한 책읽기, 2003.
- 로버트 하인라인, 임창성 역,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앞세, 1992.
- 로버트 하인라인, 임창성 역, 『여름으로 가는 문』, 앞세, 1992.
- 로버트 하인라인, 전옥수 역, 『우주의 전사』, 관일 미디어, 1997.
- 로저 켈라즈니, 김상훈 역, 『신들의 사회』, 정신세계사, 1993.
- 로저 켈라즈니, 강수백 역, 『내 이름은 콘라드』, 시공사, 1995.
- 마이클 크리튼, 정성호 역, 『안드로메다 스트레인』, 명지사, 1992.
- 메리 셸리, 오숙은 역, 『프랑켄슈타인』, 미래사, 2002.
- 박상준 편역, 『세계 SF 걸작선』, 고려원 미디어, 1993.
- 복거일, 『파란 달 아래』, 문학과 지성사, 1992.
- 복거일, 『비명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87.
- 스타니스와프 렘, 강수백 역, 『솔라리스』, 시공사, 1996.

시어도어 스티븐, 신영희 역, 『인간을 넘어서』, 시공사, 1998.

아서 C. 클라크, 김종원, 전동민, 박종성 역,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2010 스페이스 오디세이』, 『2061 스페이스 오디세이』, 모음사, 1990.

아서 클라크, 박상준 역, 『라마와의 랑데부』, 현대정보문화사, 1991.

아서 C. 클라크, 정영목 역, 『유년의 끝』, 시공사, 2002.

아이작 아시모프, 김옥수·최서래 역, 『파운데이션』, 현대정보문화사, 1992.

아이작 아시모프, 정철호 역, 『로봇』, 현대정보문화사, 1992.

아이작 아시모프, 정태원 역, 『벌거벗은 태양』, 고려원미디어, 1992.

아이작 아시모프, 김민식·김선형 역, 『골드』, 한뜻, 1996.

알프레드 베스터, 하경혜 역, 『타이거, 타이거』, 꿈이 있는 집, 1993.

알프레드 베스터, 강수백 역, 『파괴된 사나이』, 시공사, 1996.

알프레드 E. 보그트, 오학영 역, 『우주선 비이글호』, 동서문화사, 1978.

어슐라 K. 르 귄, 서정록 역, 『어둠의 왼손』, 시공사, 2002.

어슐라 K. 르 귄, 이수현 역, 『빼앗긴 자들』, 황금가지, 2002.

에드거 라이스 버로우즈, 오학영 역, 『화성의 프린세스』, 동서문화사, 1978.

에인 랜드, 정명진·신예리·조은옥 역, 『아틀라스』, 민음사, 2003.

올더스 헉슬리, 권세호 역, 『멋진 신세계』, 서문당, 1972.

윌리엄 김슨, 노혜경 역, 『뉴로맨서』, 열음사, 1996.

제스퍼 포드, 송경아 역, 『제인에어 납치사건』, 북하우스, 2003.

정영목 편역, 『세계 SF 걸작선』, 도솔, 1993.

제임스 G. 발라드, 김진경 역, 『크리스탈 월드』, 1999, 시공사.

조 홀드먼, 강수백 역, 『영원한 전쟁』, 시공사, 1996.

조지 오웰, 김순녀 역, 『1984』, 청목사, 2000.

코니 윌리스, 최용준 역, 『개는 말할 것도 없고』, 열린책들, 2001.

폴 앤더슨, 천승세 역, 『타우 제로』, 나경문화, 1992.

폴 앤더슨, 강수백 역, 『타임 패트롤』, 시공사, 1995.

프랭크 허버트, 강무홍, 박정선 역, 『둔』, 풀빛, 1992.

필립 K. 딕, 정태원 역, 『앤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글사랑, 1992.
필립 K. 딕/오근영 역, 『높은 성의 사나이』, 시공사, 2001.
하이텔 번역모임 멋진 신세계 역, 『세계여성소설 걸작선1, 2』, 여성사, 1994.
한기찬 역, 『플레이보이 SF 걸작선』, 황금가지, 2002.
할 클레멘트, 안정희 역, 『중력의 임무』, 시공사, 1996.

2. 논문 및 단행본

강현구, 「‘소프트 교과서’형 에듀테인먼트와 문화창작론」, 『대중서사연구』 제 16호, 2006, 157-194쪽.
로렌스 트리트 엮음, 고정기 역, 『추리소설 쓰는 법』, 보성사, 1987,
박성봉, 『도널드 윌하웃의 미학과 함께 한 일주일』, 일빛출판사, 2004.
박성봉,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의 예술』, 일빛출판사, 2002,
박성봉, 『대중예술과 미학』, 일빛출판사, 2006.
에르네스트 만델, 이동연 역, 『즐거운 살인』, 이후, 2001.
오상원, 「문제성을 찾아서: 작가와 작품해설」, 『세계전후문학전집6: 남북구전후 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74판.
David Kyle, *A Pictorial History of Science Fiction*, London, 1986.
George N. Gordon, *The Language of Communication*, New York, 1969,
Jane Tompkins, *Sensational Designs*, Oxford Univ. Press, 1985.
Richard L. McKinney, *Science Fiction as Futurology*, Lund, 1976.

The Popular Arts Appropriated for the Classrooms in the Junior
or Senior High School

- Science Fiction as A Concrete Case Approached through Futurology

Park, Sung-Bong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pproach the popular arts as a part of curriculum in the junior or senior high school. It is a common sense that the popular arts have been an important part of youth's daily life. But the classrooms in the junior or senior high school have not shown very much interest in them. So this paper attempts to intervene in the gap between life and education of youth from a practical angle. Since some time ago, the emphasis has been given to cultural contents to a great extent. As an essential case of it the cultural educational contents are important as much. The question is how the massive cultural products of the popular arts can be appropriated for the classrooms in the junior or senior high school with a view to the pedagogical efficienc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science fiction at the first place. Richard L. McKinney's book *Science Fiction as Futurolog* was the direct inspiration. His book approaches the science fiction from the futurological point of view. The revolutionary changes in technology in the present time have been so thoroughgoing that the futurological education in the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is crucial for the

students to handle their present and future. In this context the 30-years old book is still effective because the science fiction deals with the future as a matter of fact. The author revises McKinney's book into a school text for the school teachers who try to secure the interest of the students at the same time as to widen their perspective of life and future. Positively, the students are already well-accustomed to the science fiction experience by way of mostly films and games. What is worth emphasizing here is that the center of balance of the paper is not only put on the futurology but on the science fiction itself. What is more, for the teachers who have an interest in other genres of youth-oriented popular literature beside science fiction this paper may function as a seed of idea on how to plan the lectures. In a word, pivotal to the paper is the search for a solution to the problem concerning filling the gap between the classroom and daily life of youth outside the classroom.

Key Words

the popular arts, science fiction, futurology, the cultural, and educational contents for the classrooms in the junior or senior high school

* 위 논문은 2007년 4월 16일에 투고되어, 2007년 5월 28일 심사 완료 후 6월 2일 게재가 확정되었음.